

수도권 동남부권 전철개통(성남~여주 철도건설), 한발 더 나아가다

-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구간 '부발아치교(이천시)' 완공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지난달 31일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구간 중 이천시에 위치한 부발교(총연장 237m)를 완공했다.

부발교는 이천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국도3호선을 횡단하는 철도교량으로 차량통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치교 각 각의 부재를 단계별로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해 도로를 전면 차단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으며 지난 12월 15일부터 대형크레인(275Ton)과 전문기술자 및 근로자 2천250명, 전문 공장에서 제작한 철골조 부재 828Ton을 투입해 안전하게 완공했다.

특히 도자기의 도시인 이천시의 특징을 교량에 담기 위해 아치부(Nielsen Arch)는 떠오르는 도자의 빛을 형상화 하고 측면의 케이블은 이천시의 풍요와 활력을 표상화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이천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고 도로 중앙에 교각이 없는 80m 장경간으로 설치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 교통안전도 고려했다

부발교에 적용된 Nielsen 형식의 아치교는 상부 아치부를 안쪽으로 기울이고 케이블로 연결해, 일반 아치교량에 비해 변형이 없는 우수한 공법이며 개방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계획된 공기 내에 안전하게 교량 건설을 완료하게 돼 이천시 등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철도역사 건축, 궤도부설, 전력공급선 설치 등 후속공정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내년 상반기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권 광주·이천·여주 지역에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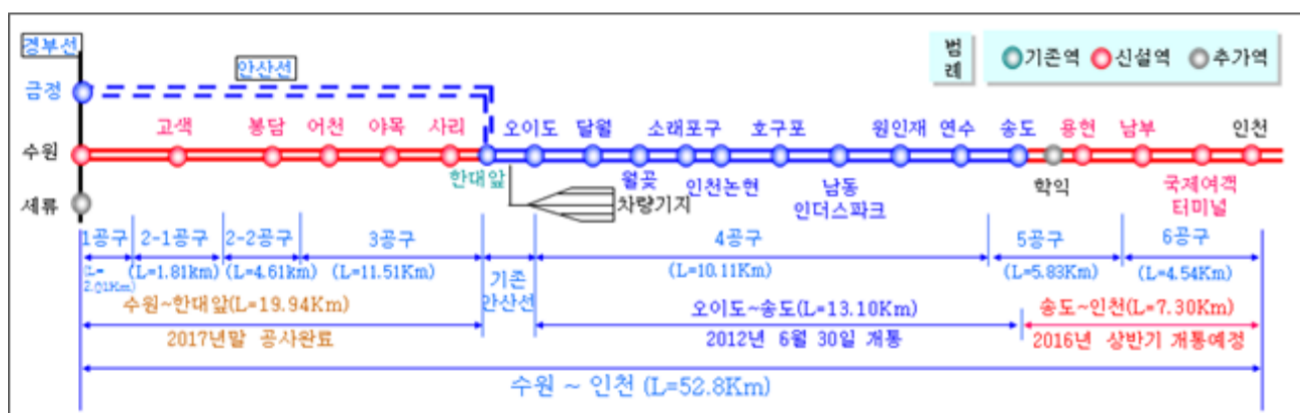
수원~인천 복선철도 안전시공 위한 결의대회 시행

- 내년 상반기 송도~인천구간의 적기 개통과 무재해 다짐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지난 3일 수원~인천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의 적기 개통 및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 결의대회를 국제정거장역(가칭) 공사현장에서 시행했다.

결의대회에는 본부 직원, 감리단 및 시공사를 비롯해 30여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무재해를 기원하며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송도~인천 철도건설구간의 적기 개통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기에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본부는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표어 공모전을 열었으며 100여개의 응모작 중 ‘지키세요 안전의식, 버리세요 설마의식’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현장에 비치하고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한 안전결의를 다졌다.



충청본부, 건강보험공단 설 명절맞이 반부패 청렴 캠페인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11일 대전중앙시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두 기관은 2010년에 상호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맺은 이래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 및 공기업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매년 공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에는 양 기관의 부장급 이상 간부진과 신규사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가 담긴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대전 중앙시장 및 은행동 지나는 시민들에게 청렴사회 구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노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으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영남본부,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실천

- 독거노인 명절음식 배송 등 소외이웃 릴레이 지원활동 전개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지난 11일은 부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 12일은 노인복지관을 찾아 ‘설 명절 정 나눔 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설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어려운 경기로 힘들어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이용해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재래시장에서 직접 행사물품을 구입했다.

본부는 2005년부터 매년 명절 전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KR영남봉사단원 30여명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4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정 나눔 행사 등을 꾸준히 시행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충청본부, 꾸준한 봉사활동 2015년도 시동!

- 대전 동구청과 자매결연 복지기관 찾아 성금 기탁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아 선로변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대전 동구청을 찾아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작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복지기관인 평화의마을아동복지센터와 에덴노인요양원은 지난 4일에 밀알복지관을 지난 10일에 각각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본부는 2014년 ‘KR거듭나기 행사’에서 일년간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받은 사회공헌 최우수상 및 고객만족 장려상 상금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성금을 모아왔다.

노 본부장은 “공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동구청과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소외계층과 선로변 불우이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품질실, 어려운 청소년 돕기 후원금 전달

- 예산성과금 전액,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

안전품질실(실장 정천택)은 지난 13일 사회봉사 결연을 맺은 대전 동구 소재 아동보육시설인 자혜원을 찾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110만원의 장학금과 설맞이 명절 선물(쌀20kg, 4포대)을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한 장학금은 안전품질실에 근무하는 박선희 과장이 작년에 예산절감 실적으로 받은 성과금 전액을 기부해 조성됐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싶다”는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직원들이 사용처를 논의한 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혜원에 청소년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